주유소는 흑자…농민은 싼 값에

담양 농민주유소 '성공 신화'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담양 농민주유소가 고유가로 문을 닫는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성공신화를 써 가고 있다.

특히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고 이익을 배당형태로 되돌려 주는 등 농민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담양군농민회가 농민들의 권익보장과 재정난 타개를 위해 농민주유소를 설립한 것은 8년전 부터. 경영실적을 보면 연간 30억원대 매출에 순이익은 1억원 정도다. 이번 회기에도 35억원의 매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도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대출금 상환과 5명의 직원들 급여 등 운영비를 충당하고도 1억원 안팎의 당기 순이익이 전망되고 있다.

농민주유소는 이익금으로 매년 출자자와 주유소를 이용한 농민 고객들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넣은 농민들에게 사용실적에 따라 ℓ당 20원의 '이용고 배당'을 했고 출자자에게는 출자금의 7%를 되돌려 주는 등 배당금으로 4천50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올해는 이용고 배당을 늘리고 출자자 배당을 줄여 농민들에게 이익금을 더 나눠줄 방침이다.

농민 125명 출자, 면세유 ℓ당 70~80원 싸게 공급

연 매출 30억 순익 1억…인근 지역 농민들도 단골

농민주유소가 이처럼 성공신화를 쓸 수 있었던 원인은 가격인하로 농협주유소에서 독점해 온 면세유 공급을 깼기 때문. 2000년 담양읍 가산리에서 석유를 배달하는 '부판점' 형태로 영업을 시작한 농민주유소는 당시 농협주유소가 독점 공급해온 면세유를 보다 싼 가격에 농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나주 농민주유소에서 기름을 실어와 팔기 시작했다.

2003년 4월에는 농민 125명이 1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출자, 자본금 2억7천만원으로 담양읍 삼다리에 350평 규모의 주유소를 마련하면서 농협주유소는 물론 타 지역 주유소보다 면세유를 ℓ당 70~80원씩 싸게 공급했다.

고유가시대 저렴한 면세유 공급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앞장서고 있는 남종희 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농민주유소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민주유소의 가격파괴는 기존 농협주유소들의 가격인하를 유도했고 싸게 판다는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인근 장성·곡성·순창지역 농민들까지 고객으로 만들었다.

마진을 줄인 영업전략으로 농민주유소는 현재 담양을 비롯한 전남 중부권 최대의 면세유 공급 주유소로 성장했으며 전체 매출에서 면세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차지하고 있다.

남종희 소장은 "유가급등으로 면세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의 농민 부담액이 ℓ당 지난해 600원에서 현재 1천300원으로 2배이상 늘었다"며 "농민들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앞으로도 보다 싼 가격에 면세유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가사·시조 창작 공모합니다"

담양군 8월 31일까지

담양군이 제 9회 전국 가사·시조 창작 공모전을 개최한다.

가사문학의 계승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조선대 인문학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각 100만원, 우수상 4명 각각 5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문의 (061-380-3240~1, 062-230-6519)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낮엔 의사, 밤엔 선생님 '보람 두배'

장흥 공중보건의 2명 '야간 공부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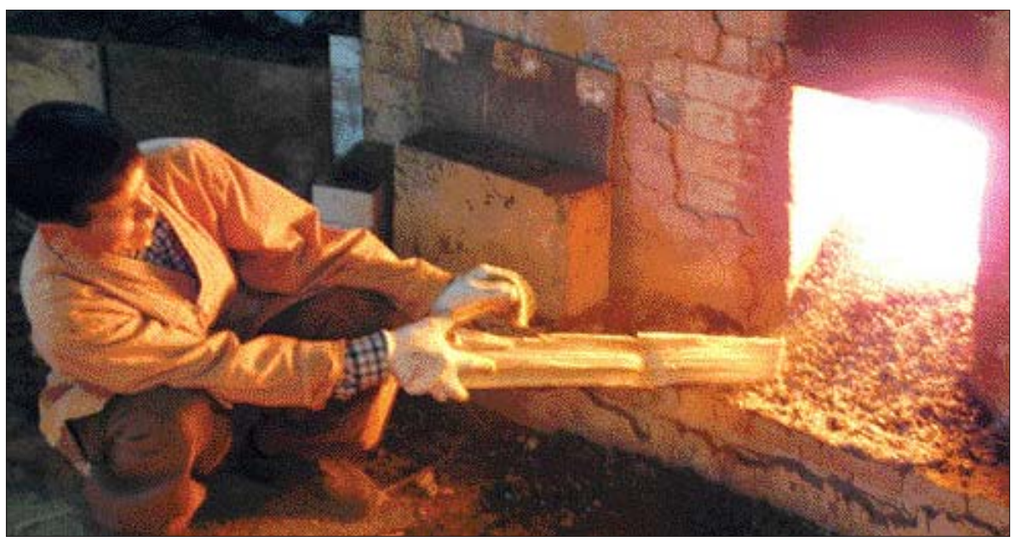
장흥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장흥군 안양면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김창영(27)씨와 김진기(27)씨는 지역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 동안 자원봉사로 영어와 수학을 지도 하고 있다.

야간 공부방은 백형갑 안양면장이 학원수강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나서 줄 것을 제안, 보건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문을 열게 됐다.

김이기 안양중학교장은 "학생지도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생보자 자녀나 조손가정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탈선예방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청자박물관 도공들이 전통 화목가마에서 청자를 굽고 있다. 상감청자의 비색은 온도와 시간, 도공의 노력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강진군 제공〉

나주 주몽세트장 영화·드라마 촬영 다시 활기

영화 '쌍화점' 이어 드라마 '바람의 나라' 등 줄줄이 예약

나주시 공산면 삼한지테마파크(주몽 세트장)에서 국내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영화 촬영과 드라마 제작이 예정돼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한지테마파크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유하 감독이 연출을 맡고 조인성, 주진모, 송지효 등이 출연하는 영화 '쌍화점'이 촬영된다.

'쌍화점'은 원나라의 정치적 지배를 받던 고려 말을 배경으로 고려왕과 친위부대인 '건릉위'의 수장 홍림, 그리고 원나라 출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랑과 배신을 그린 영화다.

나주시는 영화촬영 장면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전망대를 촬영기간 내내 개방한다.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 및 영화촬영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요원을 추가 배치한다.

삼한지테마파크에서는 쌍화점에 이어 7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KBS드라마 '바람의 나라', SBS드라마 '왕녀자명고', 영화 '전우치' 등 4편이 잇달아 촬영된다.

또 이들 드라마 및 영화촬영을 위해 고구려궁을 신축하는 등 대대적인 세트장 보완 공사도 추진된다.

나주시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 유치 및 전문 관광업체 운영으로 삼한지 테마파크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061-330-8714, 335-7008)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오이·한약재 이용 미용비누·팩 개발

오이와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미용비누와 팩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채소연구시험장은 최근 미백효과와 피부내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 고급 미용비누와 팩을 개발해 특허출원했다.

미용 비누는 오이와 한약재를 사용해서 만든 친환경 비누로 앞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인기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방 오이팩은 올리고당 등의 첨가제와 한약재를 첨가해 만들었으며 항균과 보습성, 미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동기자 song@

장작 때서 만든 강진 '화목가마 청자' 경매

18일 요출 행사…20~30% 즉석 할인 판매

전국 유일의 관요(官窯)인 강진청자박물관이 오는 18일 강진요 제 2가마에서 40여 시간 구운 청자작품을 꺼내는 요출(窯出)행사를 열고 즉석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소나무 장작으로 굽는 화목(火木)가마는 최고 품질의 청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온도 조절이 쉽지 않는 등 작업 과정이 번거로워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보통 청자 굽기는 LP 가스불을 사용하는 가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화목가마에서 생산된 청자는 가스 가마 청자보다 50% 가량 비싸다. 특히 천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화목가마 굽기는 상감청자의 비색을 그대로 재현하는 등 최상의 청자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이번 경매에서는 비룡형주자, 청자합, 매병, 주병 등 국보 재현품 11종 80여 점을 평소보다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화목가마 요출 인증서도 함께 제공된다.

윤순학 박물관장은 "낙찰자 기념촬영, 청자 빚기 체험 등 부대행사가 준비됐으며 박물관은 무료개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장성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샬롬의 집' 개소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샬롬의 집'이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에 문을 열었다. 〈사진〉

장성군이 18억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샬롬의 집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562㎡ 규모로 60개의 병상과 물리치료실, 응급처치실, 감각치료실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샬롬의 집은 치매와 중풍·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6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샬롬의 집 개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시설 5개소와 재가시설 5개소를 확보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